



여야 정치일정 ‘올스톱’... 당차원 사고 수습 동참

새누리·새정치, 대책위 구성 대응방안 논의 경선·상임위 활동 연기...골프·음주 자제령

여야 정치권은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이틀째인 17일 근과 해경의 실종자 구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였다.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 경선 일정과 선거 운동은 물론이고 국회 상임위 활동도 중단했고, 지방선거 주자들 역시 대의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여야의 대변인단은 침몰사고와 관련된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는 아예 논평도 자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심재철·유수택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월호 침몰 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심재철 공동위원장은 최고위에서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당 차원의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안전문화 규정을 비롯해 법적·기술적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발언과 처신을 주문하는 동시에 골프 및 음주 자제령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농해수위·안행

위·교문위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구성했던 대책단을 이날 대책위원회로 격상해 사고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상황실을 설치해 주말과 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갔다.

박광온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상황과 약과 현장지원, 구조활동에 모든 힘을 쏟는다는 방침에 따라서 현장인 안전 단원구와 진도에도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의원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전남도당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단을 만들어 구조 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김한길 대표는 1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어느 정도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는 토론회를 미뤄달라고 주최 측에 요청했다. 여야는 지방선거 운동도 이틀째 중단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식 일정은 물론이거

니와 문자발송, 명함돌리기, 여론조사 등도 모두 중지시켰다. 오는 18일 대전시장, 20일 대구시장·강원지사 후보 경선도 연기했다.

새정치연합도 시·도당에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무소 개소식, 명함 돌리기 등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기지사 경선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산소통 메고 구조 활동할 계획이 아니라면 정치인과 후보들의 현장방문, 경비함 승선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재난본부 방문으로 또 하나의 재난을 안기지 마시라”고 썼다. 이와 함께 여야는 4월 임시국회의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순연하기로 했다.

당장 ‘이석기 제명안’ 상정을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는 잠정 연기됐다.

안행위는 18일로 예정된 침몰사고 긴급 현안보고를 사고 수습 이후로 미뤘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사고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초까지 회의 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도 국회 직원들에 대해 음주·골프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9일 국회 경내에서 녹화될 예정인 ‘KBS 전국 노래자랑’은 연기됐고, 20일 국회운동장에서 열릴 ‘3부 추곡대회’는 취소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유가족 위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2일째인 17일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 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생존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 각국에도 물결

美·中·日 “구조 활동 모든 지원”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애도와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들도 승객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내용 등을 담아 실시간으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국의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미국 7함대 소속 분함 리처드함을 해당 수역에 파견해 지원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한국대사관은 17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위로전을 보내 “여객선 침몰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한국 측이 수색 구조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기꺼이 돕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도 성명 등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참사로 승선 해 있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다는 점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면서 “희생자 유가족, 한국 정부와 한국민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엔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생존자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존 베더외교부 장관도 성명에서 “침몰 승객 대부분이 학생인 이번 사고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정치권도 선거운동 잠정 중단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개소식 취소...철야 기도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이 6·4 지방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노응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선거관련 토론회나 후보자 개소식은 일체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개별 후보가 파란색 접퍼를 입고 거리에서 하는 일체의 선거운동도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과 휴일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던 각 예비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모두 취소됐다. 아울러 각 후보들은 ‘실종자 생존’을 기원하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는 등 당분간 선거운동이 모두 ‘올스톱’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경선 후보인 이

응섭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밤 진도 사고현장에 다녀온 뒤 이번주까지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감에 출마한 김왕복 예비후보도 사고 당일 진도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나선 주승용 의원 측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은 사고 당일부턴 진도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에 내려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대부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실종자들의 무사 생존을 빌었다.

광주시의원 재선 도전에 나선 이은방·홍인하·김영남·김보현 광주시의원 등은 18일

과 19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선거운동도 모두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배용태 목포시장 예비후보도 오는 19일 열기로 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무기한 연기하고 이날 지지자들과 함께 단체인력을 했다.

전남 광주지역 구청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최영호 남구청장은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과 함께 선거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진도의 기억’을 위한 철야 기도에 들어갔다.

광주시의원(복구 6선거구)에 출마한 전진숙 전 광주 북구위원은 실종자 생존기원과 함께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종교계, 무사귀환 메시지

교황·김희중 대주교 희생자 위로 기도

종교계가 지난 16일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놨다.

교황청 국무원들은 1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를 통해 보낸 ‘세월호 침몰 희생자에 대한 교황 성하의 위로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주도를 향하던 세월호의 침

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아시고 슬퍼하시며, 유가족들과 아직 행방불명인 이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희생자들의 영혼의安息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날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여객선 침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망자들과 실종자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무의미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묵묵히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고 곁에 있겠다는 저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이날 전국 2500여 개 사찰에서 ‘진도 여객선 실종자 무사 생존’을 바라는 기도를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는 “안타까운 죽음을 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승객, 선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서부지방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작은 불씨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성냥, 라이터는 두고 가고...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취사 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꺼진 불도 꼼꼼하게 다시 보고 남의 불씨도 꼭 챙겨보세요.
산불이 사라지면 산림이 살아납니다.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산불신고전화 063-620-4620~3

관리하기 힘든 산! 국가(산림청)에서 매입해 드립니다.
(063)620-4631